

# ‘안전한 보성’ 만들기 국가안전대진단 순항

### 7개 분야 22개소 민·관 합동 안전 점검 노후·고위험 시설 결함 여부 집중 확인

보성군이 ‘안전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성군은 25일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달 5일부터 관내 노후 공공시설·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대진단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 지자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사회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재난 대비 활동으로 2015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점검 대상 시설물을 최소화했다. 안전대진단 기간 동안 유관기관 합동 점검에는 전남도 사회재난과, 보성군 안전건설과, 시설관리부서, 건축사, 전기전문업체, 가스안전공사, 보성소방서 등 개별 전문가가 참여한다. 건축물 보·기동·지반 등 주요 구조부의 중대 결함 여부와 전기·가스·소방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올해 점검 대상은 소규모 공공시설 등 7개 분야 22개소 노후·고위험 시설이다. 보성군은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

복 점검을 최소화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는 드론 등 첨단장비를 투입해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운 곳도 면밀하게 점검하는 등 안전 점검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성군은 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는 한편, 추가 진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곧바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철우 군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위협 요인을 파악한 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보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

## 호동마을, 보성종합예술제 마을이야기 대회 ‘대상’

한국예총보성지회가 주관하고 보성군이 후원한 ‘2021 보성종합예술제 읍·면 마을 이야기 대회’에서 특랑 예당3리 호동마을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사진>



최근 열린 읍·면 마을이야기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2개 읍·면 마을 주민들이 꾸민 마을 스토리 영상을 송출하고 각자 마을의 명물을 알리는 언택트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랑면 호동마을 주민들은 선사시대 고인돌 16기가 발견된 곳인 호동마을의 유구한 역사문화를 영상을 통해 알렸다. 또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매력적인 마을” 슬로건으로 트로트 ‘당신이 최고야’ 노래를 ‘호동이 최고야’로 개사해 율동과 함께 불러 호응을 얻었다. 마을 이야기 대회는 보성 600개 자연

마을이 갖고 있는 문화·역사적 스토리를 마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해 새로운 문화관광 마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됐으며 대상을 수상한 마을은 전남도 마을이야기 박람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조승권 특랑면장은 “호동마을은 아름

다운 자연경관으로 주민 만족도가 높고 특히 토착민과 귀촌인들이 친목을 다지며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어 귀농귀촌 마을 발전 가능성도 크다”며 “귀농·귀촌 뿐만 아니라, 영농활동 등에서도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하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

## 축산 약취 저감 자율관리 강화

보성군, 축사 운영·관리 책자 배포 보성군은 25일 “지속 증가하는 축산 약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농가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운영 및 관리 준수사항’이 포함된 홍보 책자를 농가에 배포해 축산농가 스스로 사업장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특히 홍보책자를 제작해 단순 배포하

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축산 농가를 방문해 축사 운영·분뇨 관리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축산단체(한우회 등)에서는 자체 교육에 활용토록 했다. 또한 축산 농가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작성 보관해야 하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대장’ 기재 방법 등을 수록해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돼 약취 저감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자가 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홍보책자를 받은 축산농가는 “사진을 통해 위반 사례를 직접 보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고 모르는 법적 준수사항 등을 안내받아 사업장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또 관리대장도 군에서 직접 만들어줘 불편함을 덜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흥군 관계자는 “축산 약취 저감을 위해 지원 사업과 각종 교육·SNS를 활용해 홍보하고 운영 관리 책자를 이용한 수시 계도를 통해 깨끗한 보성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보성=임병연기자

## 광주 대인동의 문화공원 김넛과

**카페**  
식음료, 카페갤러리, 아트상품 전시 & 판매

**아트호텔**  
전객실 회화전시 / 장기숙박할인(음식조리가능)

지하갤러리(55평), 2층(75평) 전시, 상설공연, 도서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음악콘서트(저녁 7시 30분)  
최대 100여명 사용가능

**김넛과**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2-2번지  
전화번호 : 062-229-3355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순 장흥군수가 최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안전근 의사 단지동맹 공원 조성, 토요시장 주변 경관시설 설치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장흥군 제공>

## 장흥군,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확보 잔결음

### 정중순 군수, 행안부 방문 6건 55억원 지원 건의

장흥군이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장흥군은 25일 “정중순 군수가 최근 지역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를 방문,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군수가 이날 ▲안전근 의사 단지동

맹 공원 조성 ▲토요시장 주변 경관시설 설치사업 ▲대형 LED 전광판 설치 ▲군계획도로 개설 공사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 등 6건 55억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정 군수는 지난 3월에도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탐진강 30리길 정비사업 8억원과 토요시장 진입교량 개선사업 5억원의 특

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5일-8일 집중호우 피해 시에는 항구 북구사암비로 16억원을 확보하는 등 특별교부세 13건 34억원을 확보했다. 정중순 군수는 “장흥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제든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방문해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장흥=노형록기자>

##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준비 박차

### 장흥군, 대응계획 보고회... 방역 활동·지역협력 대책 추진

장흥군은 최근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시행에 대비한 분야별 대응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보고회를 통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관광객맞이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분야별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대응계획을 발굴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관광산업 활

성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주요 대응 계획은 위드 코로나 시기 국민 안전을 위한 ‘백신접종 90-90 전략’(1·2차 접종 90% 달성 목표), 안전 여행 방역 캠페인,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강화, 코로나 방역·소상공인 지원 등 주요 분야 정부 예산 확보 활동 전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마음 치

유 프로그램 운영, 장흥 대표 특산물 상품화·판로 확보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 마케팅 추진 등이 발굴됐다. 군은 발굴된 대응 계획을 단계적 일상 회복 이전에 신속 추진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임성수 장흥부군수는 “이제 일상 회복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며 “앞으로 ‘백신접종 90-90 전략’을 비롯한 대응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국민 안전과 지역 활력 등 2개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기자

## 장흥군, 내년 조림사업 설명회

장흥군은 25일 “최근 목재산업지원센터에서 관내 목재 생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입목 벌채 및 2022년 조림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기후 변화 대응에 따른 목재 이용 증진 및 국산 목재 공급 확대와 친환경 벌채를 기반으로 한 원자재의 안정적 공급, 지속 가능한 목재 생산을 목표로 장흥군 목재생산업체, 산림조합, 관

련 법인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설명회를 통해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개별(모두베기) 시 군상·수립대를 존치해 친환경 벌채 규정을 준수할 것과 작업 시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벌채 구역 준수, 작업 완료 후 운재로 복구 등을 당부했다. 장흥군의 2022년 벌채 예상 면적은 15

0ha로 과거 치산녹화 위주로 심었던 리기다 소나무 등을 경제적이고 가치 있는 편백, 백합나무 등 수종으로 갱신하기 위해 100ha를, 군 대표 특산물인 표고버섯 재배용 자목으로 활용하는 참나무 50ha를 벌채할 예정이다. 또 91ha, 9억3천700만원을 투자해 인테리어 목재, 필포, 우드칩으로 활용하는 편백, 백합나무 등 장기수와 임가의 단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용수인 황칠, 두릅 등 경제 수종 위주로 조림할 계획이다. /장흥=노형록기자

SONY

## USB DVD

### 영/상/변/환/서/비/스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스마트폰과 PC 모두를 위한 듀얼 USB 메모리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